

‘배비장전’의 재해석...살그머니 웃음이 난다

韓 첫 창작뮤지컬 ‘살짜기 읍서예’

조선 후기 배비장전 원작...7번째 리바이벌
고전 해학의 맛깔나는 현대적 해석 볼거리
배비장 홍광호·애랑 김선영 사랑타령 압권

온 동네 입소문을 내고 찾아와도 모자랄 판에 관객에게 ‘조용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그머니 오시라’는 공연이 있다. 바로 뮤지컬 ‘살짜기 읍서예’. 본 사람도 많지만, 보지 않고도 아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작품이다. 그것도 ‘최초’라는 목적인 타이틀을 꿰차고 있다.

반세기에 가까운, 무려 47년 전인 1966년 서울 시민회관(현재는 세종문화회관이 자리하고 있다)에서 첫 선을 보여 불과 나흘 동안 무려 1만 6000명을 동원해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기도 하다. 당시 여주인공인 애랑 역은 가수 패티 김. 대중이 알고 있는 패티 김의 히트곡 ‘살짜기 읍서예’가 바로 이 작품의 테마곡이다.

어쨌든 ‘살짜기 읍서예’는 이후에도 무려 다섯 번이나 리바이벌 됐고, 요즘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일곱 번째 ‘살짜기 읍서예’가 절찬 공연 중이다(3월 31일까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살짜기 읍서예’는 우리나라 조선 후기의 고전소설인 배비장전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고전의 해학을 오롯이 살리면서 당대의 관객 눈높이에 들도록 어떻게 세련되게 풀어내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홍광호의 ‘배비장’·김선영의 ‘애랑’ 잘 어울리네

이번 ‘살짜기 읍서예’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얻을 만하다. 배비장과 애랑의 애절한 사랑타령에 무게를 두다보니 고전의 재미가 다소 떨어진다. 일부 지적도 없지 않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랑타령’은 관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볼거리에 틀림없다.

파격적인 캐스팅도 화제가 됐다. 아닌 게 아니라 홍광호가 배비장을, 김선영이 애랑을 맡았다는 건 꽤 놀랍다. 두 사람이 누군가, 우리 나라에서 ‘성량’으로만 우열을 가린다면 1위 자리를 남 주기 싫어하는 ‘화동 성대’를 자랑하



‘배비장’역 홍광호(왼쪽)와 ‘애랑’역 김선영

는 카리스마 배우들이 아니던가.

‘지킬 앤 하이드’의 지킬(그리고 하이드), ‘맨 오브 라만차’의 돈키호테로 공연장 천정을 들쭉이게 만들며 카리스마를 과시하던 홍광호가 개구멍에 들어가 관객에게 엉덩이춤을 보여줄 줄은 몰랐다.

‘엘리자벳’에서 ‘나는 나만의 것’을 절규하던 김선영도 마찬가지. 그가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러 온 정비장에게 “앞나 하나 뺏아주고 감사”하며 허리를 살살 비트는 장면에서는 ‘그 동안 우리가 김선영이란 배우를 잘 못 알고 있었나’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두 사람의 변신은 놀라우면서도 신선하다. 그리고 상상의로 재밌다. 홍광호는 최재웅과 배비장 역을 번갈아 맡고 있다.

극의 총체적 웃음은 방자가 맡는다. 김성기, 임기홍은 겉으로는 어눌해 보이지만 뱃속에는 꼬리 아홉 달린 영악한 여우를 품고 있는 방자로 등장해 배비장을 농락한다. 애드리브인지 원래 대본인지 헛갈릴 만큼 대사 하나하나가 맛깔스럽고 웃음을 자아낸다.

애랑의 부르는 테마곡 ‘살짜기 읍서예’와 배비장이 애랑을 그리며 부르는 ‘그 얼굴뿐인데’는 집중취미 요망곡. 서로의 입장을 대바시키고 있지만, 본 바탕 멜로디는 같다는 점도 재밌다.

마지막으로 관람 팁 하나. 극 중 등장하는 4미터짜리 대형 하르방은 방자의 노래가 끝나면 심청이 찾은 심봉사처럼 눈을 깜빡이다 종내는 반짝 때 관객을 화들짝 놀라게 한다. 심지어 미소마저 짓는다. 입체 조형물에 영상을 입히는 3D 맵핑이 마법의 비발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ranbi



방자(임기홍 분)와 ‘살짜기 읍서예’의 마스코트 ‘웃는 하르방’.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뮤지컬 ‘살짜기 읍서예’가 파격적인 캐스팅, 홀로그램, 3D맵핑영상 등 최첨단기술로 구현한 신선한 무대로 관객의 갈채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CJ E&M

감독 ★★★★★

감동을 느끼고 싶다면
레이제라들이 최고다

웃음 ★★★★★

방자와 정비장이 뽀뽀
터뜨려준다

음악 ★★★★★

친숙한 멜로디.
그러나 조금은 밋밋

무대 ★★★★★

제주의 이미지를 잘 활용했다.
하르방 최고

이세돌 vs 박정환 ‘입신 최강전’ 승자는?

신 중의 신은 누구인가.

9단(입신)들에게만 출전권이 주어져 ‘신들의 제전’으로 불리는 제14회 맥스커퍼배 입신 최강전이 최종 결승3번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결승3번기의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세돌과 박정환. 프로기사 랭킹 1위(이세돌)와 2위(박정환)의 맞대결 소식에 바둑계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두 사람은 우리나라 바

둑계 1,2인자이지만 타이틀전은 의외로 처음

이다. 통산 상대전적은 6승 2패로 이세돌이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월에 둔 바둑왕전 패자결승전에서는 박정환이 이겼다.

이세돌은 박정환과의 결승대결을 앞두고 “속기전은 쉽게 이기기도 하지만 쉽게 지기도 한다”라며 “명국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만족할 만한 바둑을 두고 싶다”라고 말했다. 프로기사

맥스커퍼배 결승3번기 16일 대결
국내랭킹 1-2위전에 바둑계 술렁

들이 종종 언급하는 ‘만족할 만한 바둑’, ‘멋진 기보’ 등의 표현은 흔히 승리에 대한 후회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세돌은 이 대회에서 2005년 6회 대회부터 3년 연속 우승했다. 박정환은 지난 대회 우승자이다. 최강의 입신을 가리는 결승3번기의 첫 대결은 1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흥익동 바둑TV 스튜디오에서 벌어진다.



이세돌

박정환

컬처박스

■ 공연



●메조소프라노 최혜영, 베르디 ‘팔스타프’ 초청무대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최혜영(사진)이 오페라의 거장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공연하는 오페라 ‘팔스타프’에 초청돼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 무대에 선다.

‘팔스타프’는 주로 비극을 작곡한 베르디의 오페라 중 유일한 희극작품이다. 최혜영은 ‘팔스타프’에서 귀족리 부인 역으로 주인공 팔스타프와 함께 극을 재미있게 끌어가는 역할을 맡는다. 최혜영은 “이탈리아 음악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한국의 귀족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오페라 ‘팔스타프’는 오는 22·24일 이탈리아 파노시의 포르투나 극장에서 공연한다.

■ 새 책

유럽 5대 왕실로 본 왕조의 잔혹함



●잔혹한 왕과 가련한 왕비(나카노 교코 지음·이연식 옮김 | 이봄)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1세와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튜어트의 경쟁, 벨라스케스의 명작 ‘라스 매니 나스’ 속 귀여운 공주 마르가리타 테레사의 짧은 생애, 독일 선제후였다가 영국의 왕이 된 조지 1세가 자신의 왕비를 평생 유폐시킨 이야기. 이 책은 결코 화려하거나 아름답지 않은 유럽 5대 왕실의 이야기를 다룬다. 책 속에 등장하는 왕실은 자신보다 강한 자가 있으면 목숨을 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곳이다. 방심하는 순간, 가련한 운명으로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는 살벌한 장소가 바로 유럽의 왕실이었다. 저자는 다섯 가지의 잔혹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잔혹함을 부르는 것은 왕의 공포다’.

‘인문학 시조’ 플라톤 아카데미를 논하다



●아레테의 힘-인문학으로 창조하라(김상근 지음 | 멘토프레스)

‘학문을 위한 학문’으로 치닫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육풍토 속에서 역설적으로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에 주목하고 있는 저자의 시선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아테네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대학이자 인문학이 태동한 ‘플라톤 아카데미’로 향한다. 수학, 철학, 음악, 체육 등 전인교육을 통해 아레테(Arete·탁월함)를 추구하며 리더를 양성하던 시절, 결국 저자는 인문학의 본질이 ‘진선미’에 있음을 갈파한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철학적 화두를 던지며 운명을 당당히 헤쳐 나가는 ‘오디세이아’ 정치학을 펴기도 한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한 인문학이 중세를 거치고, 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하며 어떻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지, 한 권의 책으로 섭렵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양형모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김스 스포츠 (kim's sports)의
“티나”(teena) 중소기업
직영광고

공기주입형
Size: 160cm

아름다운 모습...
“티나”(teena)는 “리사”(Lisa)의 후속 작품으로 두겹고 내구성인 튼튼한 고가의 재료만 사용하여 만든 최고급 최신허 제품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 휴대와 보관이 편리하여 인기가 좋은 제품입니다. 공기 주입형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김스 스포츠”는 1999년에 창립한 회사로 가격 보다는 품질을 으뜸으로 여기며 항상 변함이 없는 광고와 고객들의 꾸준한 신뢰로 인정받는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중소기업체입니다. 최신허 A/S 시스템을 갖추고 장기간 사용하는 고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남자들이 필요로 하는 “티나”는 전화 상담 또는 인터넷 화면으로도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 주소창에→ <http://김스스포츠.한국>

제품문의 010-3500-5324 (02) 423-0020

인쇄모형 예술완구 전문제작사
김스 스포츠(kim's sports)
“김스 스포츠”는 허가받은 일반제조사업자입니다.

디지털 발기콜

1. 발기원리 - 병원에서 봉
인플란트 시술과 같고 약 4
센치 콘돔두께로 끼우면
디지털이 혈액을 올려 안
아프게, 길고, 굳게 발기
된다.

2. 사정해도 즉시 않고 3시
간이상 발기지속.

3. 즉시 발기 안 되고 조루
증 안 생기면 환불보장.

4. 각종 링, 성기통맥혈류
증진기, 펌프처럼 성기통
을 아프게 조여 혈액을 즉
사시켜 완전발기불능자로
만드는 제품이 아니다.

5. 당뇨, 고혈압, 성기확
대자, 전립선암수술자, 90
대, 완전발기불능자, 즉시
발기된다.

6. 발기약 안 먹고 발기되고, 표시 안나 아내도 속는다.

7. 성기 작은 사람 혈액을 디지털로 통증 없게 풍선 바람 많이
넣듯 올려, 길고, 굳게 확대한다.

※ 젊을때 시작하면 더 많이 길어진다.

8. 인체에 해가없고, 반영구적 특허품.

※양기환은 남자 양기를 보충해주는 식품이다.

010-9607-9970, 010-2762-2540
070-8243-9970

입금계좌 : 농협 351-0180-1510-63 구인숙
서울시 영등포 대림동 1062-33 / 통신판매번호 2012 영등포 0381 통신판매업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20926-증-32390

트루맨 남성의원

발기부전 보형물 삽입술 **광형형/광형형**
원터치 약물주입요법

✓ 귀두/음경확대 ✓ 조루/길이
✓ 바세린/만곡증 ✓ 남성지방흡입
(복부/여성형 유방)

✓ 포경/정관

남성수술

왕십리점 02-2297-9616
서울 강남구 삼성동 46 광명빌딩 2층
(2호선/5호선 삼성역 1번출구)

강남점 02-557-551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22 삼성빌딩 3층
(2호선 선릉역 10번출구)

명동점 02-318-7571
서울 중구 남산동 1가 1-2번지 명동빌딩 5층
(4호선 명동역 3번출구)

부천점 032-323-8575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5-2 시그마타워 4층
(1호선 숭실대역 2번출구)

분당점 031-704-75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애동 362-2번지 메트로빌딩 7층
(분당선 아람역 1번출구)

부산점 051-817-8526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486-9 SS메디칼빌딩 2층
(시민역 9번출구)

광주점 062-369-7532
광주광역시 서구 효성동 480-24 무등신대빌 3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trueman75.co.kr

트루맨

대표번호
1577-5095

ManClinic 비뇨기과원 맨남성의원

진료 남성의학클리닉

조루 발기부전 (원터치약물주입요법/보형물 삽입술)
대표 전화 **1577-7574**

레이저포경수술 / 성형종합검진
김이연장 / 바세린제거술
음경만곡증 / 정관수술

강남신사역 02-592-2220 일산 031-932-7933
신사역 5번출구 K타워 5층 맨남성의원 백석역 1번출구 맨비뇨기과의원

노원 02-935-8777 인 천 032-439-0007
노원역 8번출구 맨남성의원 안원역 2번출구 신세계백화점 맨남성의원

신도림역 02-3439-7582 부 천 역 032-657-0008
신도림역 1번출구 맨남성의원 부천역 대성병원 맨비뇨기과의원

천호역 02-477-3477 안양 평촌 031-421-7511
천호역 4번출구(롯데백화점역 4층) 맨비뇨기과의원

천호역 4번출구 맨남성의원 수원역 031-255-7582
수원역 2호선 수원 맨남성의원

천안 아산 041-563-0808
천안역 1번출구 맨남성의원

대 전 042-484-7373
갤러리아백화점 맨남성의원

광주광역시 062-351-7582
신세계 백화점 사거리 맨남성의원

여수 순천 061-721-2555
최혜영 최혜영 맨비뇨기과의원

대 구 053-743-0075
대구MBC 건너편 맨비뇨기과의원

포항 경주 054-231-7001
상원동 스타타워상가 302층 맨남성의원

부산서면역 051-803-7533
성천역 1번출구 (구)원우빌 4층 맨남성의원

창원 마산 055-256-0303
마산합성동 지리바스터리빌 앞 맨남성의원

www.manclinic.co.kr